

구리소방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현장통합지휘체계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킨다.

기사입력시간 : 2023/10/30 [21:46:25]

고기환기자



▲ 구리소방서는 자원회수시설 및 구리타워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단체 기념사진(사진=고기환 기자)

경기 구리소방서(서장 김윤호)는 10월 30일 오후2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및 구리타워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만일의 대형재난을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과 긴급구조지원기관, 단체별 역할 분담을 통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재난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이번 훈련은 자원회수시설 내부 폐기물 벙커 속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손상과 마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폭발로 인해 인근 구리타워까지 화재전이 및 인파밀집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구리소방서와 남·여의용소방대를 비롯해 구리시청, 구리경찰서, 73사단, 55사단 170여단 2대대, 한국전력공사, KT,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예스코, 대한적십자사, 구리자원봉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의 15개 기관·단체에서 300여 명과 장비는 총 50대가 동원되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기관별 역할에 대하여 점검하는 동시에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훈련 유형은 배터리 모듈 원인미상의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인명대피 및 자위소방대 활동 ▲선착 소방대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충력대응체제 구축 및 유관기관 재난수습활동 ▲인명구조 및 종합방수 ▲지휘권 이양 및 복구 순으로 진행됐다.



▲ 자원회수시설 및 구리타워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구리의용소방대 단체 기념사진
(사진=고기환 기자)

김윤호 구리소서장은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속적인 반복 숙달 훈련으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현장통합지휘체계 확립,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훈련에 적극 참여해준 구리남의용소방대(대장 송병현), 여의용소방대(대장 이정순)와 기관·단체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 구리소방서는 자원회수시설 및 구리타워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사진=고기환 기자)



▲ 구리소방서는 자원회수시설 및 구리타워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사진=고기환 기자)



▲ 구리소방서는 자원회수시설 및 구리타워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단체 기념사진(사진=고기환 기자)